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4. 12. 26.(목) 11:00 < 12.27.(금) 조간 > 배포 2024. 12. 26.(목)

외국인투자 모멘텀 지속·강화 위해 「중앙-지방 외국인투자 정책협의회」 개최

- 외국인투자 확대기조 유지 및 통상환경변화에 중앙-지방 간 긴밀히 공조·대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12.26(목)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16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 유치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중앙-지방 외국인투자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협의회는 미국 트럼프 신정부 출범, 지속되는 지경학적 갈등 등으로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외국인직접투자 확대의 동력을 유지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관 간 역량을 결집하고자 마련되었다.

회의에서는 ▲2025년 외국인투유치 위한 정부 정책방향, ▲최근의 통상 동향과 주요현안, ▲지자체별 정책방향과 정부 건의 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올해 외국인직접투자가 330억 불을 돌파하며 역대최대실적을 경신*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하며, “중앙정부의 선제적 대응노력과 지자체의 지역별 특성을 살린 투자유치전략이 결합된다면 더 많은 외국인 투자를 이끌어내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외국인직접투자 실적(신고, 억불) : ('22년) 304 → ('23) 327 → ('24) 330↑

회의에 참석한 지자체 관계자들은 외국인투자 유치와 통상대응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대내외적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비상한 각오로 다각적 노력을 다할 것이며, 중앙부처와도 긴밀히 정보를 공유해 대응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은 2025년 외국인투자정책 추진방향을 마련하는 데 반영될 예정이며, 정부는 외국인투자가 한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확대, 규제개선, 기업지원체계 구축 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부는 외국인투자 및 통상과 관련한 산업부-지자체간 정책협의회를 연2회 이상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중앙-지방간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투자정책관 투자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상희 (044-203-4070)
		담당자	서기관	김범수 (044-203-4071)
		담당자	주무관	장재혁 (044-203-407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 **중앙-지방 외국인투자 정책협의회 개요**

□ 개최 목적

○ 정부-지자체 간 **'24년 외투 성과 점검** 및 **'25년 외투정책 방향** 공유

○ 지정학적 갈등 지속, 美트럼프 新정부 출범 등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된 여건 아래 **중앙-지방간 긴밀한 협력기반 구축**

□ 회의 계획(안)

○ **(일시/장소)** **'24.12.26**(목) 14:00~15:00 / **무역보험공사** (11층, 대회의실)

○ **(참석대상)** **통상교섭본부장**, 무역투자실장, 16개* 광역지자체 투자유치 담당 등

* 17개 광역시도 중 제주도 불참

○ **(논의내용)** **외국인투자 현황 및 '25년 정책방향**
통상 관련 중앙-지자체 협력사항 등

□ 진행 순서

※ 언론공개 범위 : 본부장 모두발언

시 간	세부 내용	비 고
14:00~14:05 (5')	• 모두 발언	통상교섭본부장
14:05~14:11 (6')	• 외국인투자 및 통상 분야 발언	투자/통상 담당부서
14:11~14:57 (46')	• 시도별 '25년 외추 추진방향 논의	각 시도
14:57~15:00 (3')	• 마무리 발언	통상교섭본부장